
濟州道民의 社會·文化 意識上의 傳統性

- 社會調查 資料의 分析을 中心으로 -

申 幸 澈

目 次

- I. 序 論
- II. 傳統文化의 要素와 그 意義
- III. 意識上의 傳統性에 대한 概括分析
- 調查資料의 分析 I -
- IV. 意識上의 傳統性에 대한 道内 他道民과의 比較分析
- 調查資料의 分析 II -
- V. 結 論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사람들은 同一한 時間的 空間的 生活環境을 經驗하는 동안 그 生活樣式이 內面化되어 그들 社會 特有의 意識構造를 갖게 된다. 意識構造는 “한 集團成員 大部分의 性格構造의 本質的 核心이

며 그 集團 共通의 基本的 經驗과 生活樣式의 結果로서 形成된 " 社会的 性格(social character) ¹⁾의 한 側面으로서 그 社会成員의 一般的 觀念形態이며 信念의 組織으로 把握할 수 있다.

그 要素로서 우리는 첫째,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바람직한지의 여부등 確信의 정도로 나타나는 知識인 認知的(cognitive) 要素, 둘째 対象에 대한 嗜好度를 말하는 情緒的(affective) 要素, 셋째 行動으로 옮겨질 可能性이 있는 先有傾向을 말하는 行動的(behavioral) 要素를 들 수 있을 것이다.²⁾

이러한 人間의 意識은 社会的의 差異에 따라 같은 社会 속에서도 階層上의 差異에 따라 서로 다르게 形成되어 그 社会成員의 行動을 規制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社会統制의 機能을 띠고 社会的 統合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³⁾

특히 社会 文化意識은 意識의 深層部를 形成하는 人間 意識의 下部構造에 해당한다. 社会 文化 意識이란 社会集團 成員 相互間에 形成되는 關係類型에 대하여,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生活方式를 案内하여주는 基本的 規則에 대하여 나타나는 意識으로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形成되고 사람들의 內面 깊은 곳에 자리잡아 그들 生活全般을 支配하는 意識인 것이며 餘他的 여러 表層部를 形成하는 意識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그 變化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도 技術的 物質的 變化에 対応하여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때로는 社会變化에 社会的, 文化的, 心理的 障壁을 주는 要因이 된다.

이러한 社会 文化意識은 어떤 社会的 社会·文化的 傳統과 狀況을 背景으로 하여 그 社会成員의 內面에 발달된 것이다. 그러므로 濟州道民의 社会·文化意識은 濟州地域社会的 社会·文化的 傳統을 고려하여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濟州道の 社会·文化的 傳統이 韓國의 傳統 속에 形成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한편 濟州道는 島嶼라는 環節의 地域社会로서 文化的으로 停滯性을 띠고 그 傳統性이 상당한 정도로 殘存할 可能性이 있음을 假定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濟州道는 그 地理的 條件으로 하여 過去 새로운 文化樣式의 流入에 困難이 있었을 것이지만 일단 어떤 文化樣式이 流入 土着化하면 그 變化에의 刺戟 또한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濟州道는 「三災」, 「地瘠民貧」으로 表現되는 自然的 環境과 被虐的 歷史性으로 해서 그 特有的 社会·文化的 特性이 形成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立場에서 本稿는 韓國의 傳統을 고려하면서 濟州道の 特性으로 고려되는 生活現象에 關하여 濟州道民의 社会·文化意識上의 傳統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努力은 濟州道民의

1) E. Fromm, *Escape from Freedom*, Avon Books, 1965, p.305.

2) 全炳赫, *社会心理学*, 經文社, 1978, p.322 參照.

3) 社会意識과 社会統制에 대해서는 辺時敏, *社会学*, 博英社, 1963, pp.137 ~ 138 參照.

行動方向을 豫見하고 濟州地域社會가 指向할 方向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어떤 政策的 資料를 提供하는 貢獻일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地域社會開發에 관련하여서는 더구나 重要的 意味를 갖는 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意識上的 傳統性은 地域社會 發展에 否定的 要因으로 作用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地域社會開發事業은 그 關聯住民의 協力 없이는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地域社會開發은 可能的 한 住民 스스로가 그들 自身の 創意力에 의하여 그들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 기 위하여 積極 參與하는 것이 그 基本 要素가 되는 것이며 4) “開發「프로그램」은 部落住民 들의 切실한 欲求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可能的 한 많은 住民들의 參與를 包含시켜야 한다” 5) 왜 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의 成敗 与否는 그 「프로그램」에의 住民 參與 정도에 달려있고 住民 參與의 期待値는 그에 대한 住民의 意識 정도에서 推論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本稿의 主題가 論議되는 또 하나의 意義와 價值가 存在한다.

2. 接近方式과 資料

濟州道民의 社會・文化的 傳統性을 韓國의 傳統에 관련하여 論議한다는 立場에서 우선 韓國의 傳統에 대하여 理論的으로 概觀하고 本稿가 다루고저하는 社會・文化的 傳統要因의 性格을 規明 再組織化를 試圖한 다음 이들 諸要因을 社會調查資料를 利用하여 調查對象 全体를 包括的으로 分析하고 濟州道民의 意識上的 傳統性을 보다 明確히 하기 위하여 調查對象을 濟州本土民과 道內 居住 他地方民으로 区分하여 이들 두 집단 사이의 意識上的 傳統性을 比較 分析함으로써 濟州本土 民에게 殘存하여 있는 傳統性的 정도를 推論하고자 한다.

濟州本土民이라 함은 濟州道를 故郷으로 하면서 濟州道에 居住하고 있는 者를 말하는 것이며 道內 居住 他地方民이라 함은 調查當時 濟州道에 住在하는 入道 外來者를 말한다.

本稿에서 利用하는 資查資料는 濟州大學 統一安保研究所 研究陣이 「濟州道民의 意識構造 調查 研究」(濟州道, 1979.12.8) 資料이며 本稿의 敘述內容은 대체로 그 調查研究 中 筆者의 執筆部 分을 理論的으로 再構成 整理한 것이다.

例의 調查資料는 濟州道 成人人口를 母集團으로 하여 抽出된 1,020 명을 對象으로 한 質問紙에 의한 現地 面接調查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그 調查對象 標本은 全道를 都市化 정도의 差異를 고려하여 濟州市, 小郡邑地域, 海岸部落 및 中山間部落으로 層化한후 濟州市에 있어서는 職場單位, 其他地域에 있어서는 行政里를 目的標集(purposive sampling)으로 選定하고 各 標集

4) A. Dunham,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 Thomas Y. Crowell Co., 1958, p.253.

5)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unity Development and national Development: 文炳鎮 訳, 「地域社會開發의 理論과 實際」 中大出版局, 1968, p.5 參照.

单位에서의 調査対象者는 体系的 標集方法으로 無作為 抽出하였다.⁶⁾

層化地域別 調査対象部落과 被面接者의 數와 本土民 및 他地方民의 構成狀況은 다음 <表 1> 과 같다.

<表 1> 層化地域別 調査対象 部落과 被面接者 構成

区 分 層化地域	調査対象地	人員數(A) (B+C+D)	%	本 土 民		他 地 方 民		無 応 答	
				數 (B)	% (B/A)	數 (C)	% (C/A)	數 (D)	% (D/A)
都市地域	濟州市	203	19.9	190	93.6	11	5.4	2	1.0
小都邑地域	西陽邑 西陽二里 大靜邑 下幕里	199	19.5	178	89.4	19	9.6	2	1.0
海岸部落	中文 下鏡里, 滙 月 郭文里, 朝天 北村里, 城山 古 城里, 表善 兎山 里	406	39.8	395	97.3	10	2.5	1	0.2
中山間部落	安德 西広里, 旧 左 松堂里, 翰林 明月里	212	20.8	202	95.3	7	3.3	3	1.4
計		1,020	100.0	965	94.6	47	4.6	8	0.8

II. 傳統文化의 要素와 그 意義

주지하는 바와같이 韓國의 傳統文化를 支配하는 要素로는 샤머니즘(shamanism)과 儒教를 들 수 있다.

韓國에 있어서의 샤머니즘은 社會通念上 巫俗이라 일컬어지는 民間宗教現象을 말한다.⁷⁾ 巫俗은 “① 儀禮의 對象으로서의 神靈 ② 그 神靈의 信仰人인 巫客 ③ 儀禮執行者로서의 職能者(巫覡) ④ 巫覡行事인 儀禮의 四者”를 그 要素로 한다⁸⁾ 이러한 샤머니즘은 韓國文化의 原始的

6) 資料蒐集을 위한 보다 자세한 調査上의 方法은 濟州大學 統一安保研究所, 濟州道民의 意識構造 調査研究, 濟州道, 1979, pp.5 ~ 7 參照.

7) 韓國의 巫俗을 Shamanism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論議의 여지가 많은 것이나 本稿에서는 일단 그렇게 규정해 두기로 한다.

8) 文公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報告書(濟州道篇), 1974, 第二篇, 第二章(玄容駁外 집필) p.88.

土着的 要素로서 韓國人の 意識을 支配해온 傳統의 하나로 보아 잘못이 없을 것이다. 儒敎는 家父長制의 家族主義的, 上・下從의 關係가 道德의 價値로 받아들여져 왔다. 儒敎가 上流社會에 특히 影響을 미친데 대하여 샤머니즘은 下層 庶民社會에 자리잡아 殘存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⁹⁾ 이들 儒敎와 샤머니즘은 獨立的으로 各各 다른 社會階層에 影響을 미쳤다가 보다는 結合된 形態로 우리의 社會全般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外來 宗教나 마찬가지로 儒敎도 韓國에 土着化하는 過程에서 우리의 土着信仰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뿐아니라 儒敎가 본래 巫俗의 要素를 無視하는 合理主義的인 一面이 있다고 할지라도 「呪術로부터의 解放」의 정도가 낮았던 것이며 呪術을 否定하지 않았던 것이다. 過去 中國에 있어서 儒敎支配下에서도 道敎의 呪術的 態度가 存在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立証하여 준다.¹⁰⁾ 다시 말하면 儒敎는 非合理的인 힘이 現世의 秩序에 介入할 수 있는 可能性을 否認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事情은 天子가 그 政治를 잘못하였을 때 天地異變이 일어난다는 식의 呪術的 要素를 남겨 놓음으로써 天子로 하여금 百姓의 소리에 신경을 쓰도록 그 輦포를 막는 裝置의 구실을 하도록 하는 支配層 官人들의 意志가 반영된 것임도¹¹⁾ 생각해 볼 만하다. 이와같이 儒敎와 샤머니즘이 結合되는 現象은 儒敎의 內在의 性格에서도 類推할 수 있을 것인 즉 儒敎에 있어서의 孝道의 觀念은 祖上崇拜에 이어서 이는 死亡後의 祖上에 대하여 形式的인 儀禮를 存重하는 態度를 남겨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死亡한 祖上의 神靈에 대한 믿음에 이르러 儒敎는 샤머니즘과 결합하는 면모를 나타내는 것이고, 한편 샤머니즘의 神靈에 대한 믿음이나 儒敎의 家父長의 性格은 個人의 自主的 合理的 側面을 박탈하고 從屬化한다는 점에서도 兩者는 一脈相通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들 傳統的 要因은 오늘날 近代化 過程에서 個人主義的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西歐의 市民意識에 의해 挑戰을 받고 어느 정도 붕괴되어 가고 있음도 사실이긴 하지만 文化遲滯(cultural lag) 現象이 나타남으로써 經濟的・物質的 發展에도 불구하고 傳統文化 내지 그 意識은 그만큼 變化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이러한 傳統文化에 대한 意識은 非合理的인 性格을 갖는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西歐의 近代化가 合理的 思考를 바탕으로 하여 可能하였다고 할때 韓國人の 傳統的 意識은 대체로 近代化를 阻害하는 意識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合理主義는 感情이 아니라 理性에 바탕을 둔 것이며 人情主義・情誼性의 背擊이며 生來的인 것 보다 成就業績을 強調한다. 그것은 또한 生産性과 能率性에의 指向이며 社會現象을 대할때 人情이 아니라 事理에 따라 分析하고 客觀的으로 判斷하는 態度

9) 신순기, "釜山市民의 意識構造 分析", 釜山市, 市政研究 第5輯, 1970, p.23.

10) 黃山德, 막스·뱌버, 思想界社, 1960, p.195.

11) 上同

이고 샤머니즘으로 부터의 解放이다.

本稿는 叙上の 性格을 갖는 社会·文化的 伝統에 대한 意識을 現實 社会生活의 여러 側面에 關聯하여 論議하려 한다.

샤머니즘 側面에서는 墳墓風習과 濟州道에서 특히 支配的인 것으로 보여지는 「신구간」風習을, 儒敎傳統의 側面에서는 官指向意識, 序列意識, 男·女隔離意識 그리고 濟州道の인 家族形態에 대한 意識을 挾하였다. 물론 이들 項目들이 濟州道民의 意識上的 傳統性을 모두 包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입장을 달리하여 다른 項目을 가지고 接近할 수도 있을 것임도 事實이나 筆者는 이러한 內容의 項目을 가지면 濟州道民의 意識上的 傳統性에 대하여 그 傾向을 把握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傳統文化에 대한 意識을 各 項目別로 살펴보면서 그 項目들이 傳統性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샤머니즘적 風習에 대한 意識

本稿에서 샤머니즘의 傳統의 項目으로 挾하는 墳墓風習과 「신구간」風習이 샤머니즘의 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異議가 있을 것이나 이 風習들이 神靈을 믿고 그에 대한 儀禮의 表現으로 보기 때문에 비록 靈媒者(shaman)는 存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샤머니즘의 것으로 보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墳墓風習에 있어서 산터를 보는 것은 風水地理說에 근거한 것이며 死靈에 대한 觀念의 表現으로서 儒敎의 祖上崇拜과 關連되어 家禮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風水地理說은 一種의 샤머니즘의 思想이라 볼 수 있고¹²⁾ 死靈에 대한 觀念은 “墓所 그 자체에 死靈이 居住한다는 觀念”이며 “死靈의 生活은 現世生活의 延長으로 …… 子孫의 生活과도 密接한 關係를 맺어 互惠的인 것으로 觀念하는 것”이다.¹³⁾ 따라서 산터를 보는 것은 祖上에 대한 死後의 孝道라 할 것이며 이것이 風水地理說과 關連됨으로서 祖上의 屍身을 잘 保存하기 위하여 地形을 따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祖上의 死靈이 그 後孫들을 陰佑하리라는 것을 期待하게 되기에 이르는 것인바 이는 곧 샤머니즘의 儀禮對象으로서의 神靈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儒敎와 샤머니즘이 結合하는 面을 볼 수 있다.

「신구간」風習은 특히 濟州道에서 家屋賃賃 및 居住移轉에 時期的 拘束條件으로 作用함으로써 道民生活에 적지 않은 弊害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구간」은 神들이 분망하여 人間事에 눈 돌릴 여유가 없는 時期로서 이때의 人間行爲는 동태가 없어서 自由롭게 居住移轉을 해도

12) 尹泰林, 韓國人, 玄岩社, 1970, p.297: 樂元日, “무덤과 風水地理說”, 「제주도」 27, 1966, p.75 參照.

13) 玄容載, “宗敎民俗面에서 본 陰埋葬의 改善”, 「제주도」 27, p.83.

神의 노여움을 사지 않는다는¹⁴⁾ 觀念의 表現이 「신구간」 風習이라 하겠다. 이는 곧 神靈에 대한 믿음의 所産인 것이고 따라서 샤머니즘의 性格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濟州道에 있어서 地域開發 특히 農地整理事業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의 하나가 墳墓移葬인 것은 그 經費負擔의 側面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샤머니즘의 觀念이 또한 적지 않게 作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儒敎의 傳統에 대한 意識

儒敎의 傳統으로는 官指向意識, 序列意識, 男·女隔離意識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官指向意識은 權力指向의 表現이다. 權力을 行使하려면 官僚가 되는 것이 捷徑이었기 때문이다. 官吏가 되어야만 富를 蓄積할 수 있고 支配階級이 될 수 있었던 朝鮮時代의 傳統과 韓國 民衆 위에 君臨하여 強壓한 日人官使들의 植民支配의 歷史로 말미암아 官僚의 權威意識은 적지 않게 殘存하고 있으며 이러한 歷史的 環境의 所産이 곧 이 官指向意識이라 할 것이다.

특히 儒敎文化圈에서는 이러한 意識이 生長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儒敎倫理는 權威主義의 哲學이요 權威主義의 哲學은 平等이 無視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世界는 가진자와 갖지 못한 자 즉 優越한 者와 劣等한 者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支配와 服從을 基礎로 한 經驗이 通할 事 共同이라든지 連帶라든지 하는 概念을 느끼지 않는다.”¹⁵⁾

이러한 境遇의 權威는 合理的인 權威 即 能力, 業績 등에 緣由하는 權威가 아니고 非合理的인 權威 即, 年令, 世代, 性, 官職 등에 緣由하는 權威이며 특히 가장 威力을 떨치는 權威는 官職, 官에 의한 權威인 것이다.¹⁶⁾ 그리하여 官尊民卑의 思考方式이 등장한다. 官에 의해 학대 받던 民衆은 人間性을 박탈 당하고 壓制에 눌리고 橫暴에 시달린 나머지 權力에 굶주리게 되어 權力에 대한 羨望을 內面化하게 된다.¹⁷⁾ 여기에 韓國人에게 官指向意識이 發生하는 所以가 있고 따라서 이 意識은 韓國 文化傳統의 遺産이라 보는 것이다.

儒敎의 傳統에 대하여 둘째로 序列意識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序列意識은 階層意識이요,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그것은 非合理的인 權威主義의 表現이다. M. Weber가 말하는 바의 權威類型에 따르면 “옛 傳統의 尊嚴성과 그에 따라 行事되는 權威의 合法性에 대한 既存 信念에 基礎를 둔” 傳統의 權威¹⁸⁾로서 그 가장 기본적인 形態는 原初的인 家父長制이다.¹⁹⁾

14) 이에 대해서는 樂聖獻, 南國의 民俗, 敎學社, 1975, p.388 參照.

15) 尹泰林, 前掲書, p.188.

16) 崔在錫, 韓國人의 社會的 性格, 開文社, 1976, p.59.

17) 尹泰林, 前掲書, p.187 參照.

18) M. Weber, Economy and Society, ed. by G. Roth & L. Wittich, Bedminster Press: N. Y., 1968, p.215.

19) 上掲書, p.231 參照.

이 경우에는 傳統이 重要視되고 命令者는 神聖視되며 命令者에 대한 人格的, 全人的, 情誼的 服從이 이루어진다. 여기어 「加虐的 官員과 被虐的 民衆」²⁰⁾이라는 社会雰圍氣가 조성됨으로써 官吏는 民衆위에 君臨하여 그 權威에 대한 服從을 強要하고 人間的 當爲性을 無視해 버리게 된다.

心理學上으로 보면 被虐性(masochism)은 劣等感, 無力感, 自身の 無意味의 存在에 대한 感情으로서 이러한 感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自身을 過小評價하고 弱하게 만들고 外部的인 것에 依存하려고 한다. 自身을 主張하려고도 하지 않고 外部的인 힘의 秩序에 服從하게 한다.²¹⁾ 여기에 上·下序利意識이 등장하게 되는 所以가 있으며 이것을 儒敎的 傳統의 所産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儒敎的 傳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하나의 意識은 男·女隔離意識이다. 「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말로 表現되는 男·女隔離意識은 儒敎 遺産의 하나로서 從來 우리 生活 諸領域에서 男 女關係를 支配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男·女間의 社会的 接觸의 制約으로서 儒敎倫理의 根幹인 家族主義와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

家族員은 家族이라는 共同体로 부터 未分化된 狀態에서 家長의 支配下에 놓이게 되고 特히 女子의 境遇 社会的 接觸이 極히 制限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男女間의 自由로운 交際는 勿論 禁止되었으며 配偶者의 決定은 仲媒라는 方式에 의하여 全的으로 父母에 의하여 行해졌고 本人의 決定權은 排除되었던 것이다. 本稿에서 男女隔離意識을 配偶者 選擇方式에 관련지어 알아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近來 西歐의 自由主義 思想이 導入되면서 그 樣相이 많이 달라져서 本人의 自由로운 意思에 따라 配偶者를 選擇하는 傾向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는 結婚形態가 近代化되고 儒敎的 傳統이 崩壞되어 가는 一面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濟州道民들의 意識上 配偶者選擇의 傾向을 알아보는 것은 그 意識上의 傳統性을 把握하는 일이 될 것이다.

家族形態에 대한 意識

韓國의 傳統的 家族形態는 家長과 妻, 그 直系 尊卑屬으로 이루어지는 所謂 直系家族이다. 이러한 事情은 日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中國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家長의 有配偶 傍系親을 包含하는 所謂 傍系家族의 形態를 취하였다)²²⁾ 그런데 濟州道의 경우에는 그 家族形態가 陸地部 他地方과 달리 特異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같은 住居空間 內에서 父와 子가 살면서도 別途의 生産, 消費 및 別途의 炊事를 하는 것을 말함이다²³⁾ 이를 두고 “直系家族形態를 갖는 家族構造라 할 지라도 內容인 즉 核家族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²⁴⁾

20) 이 用語는 尹泰林, 前掲書, p.172에서 引用한 것이다.

21) E.Fromm, 前掲書, pp.163~164.

22)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民衆書館, 1975, p.635.

23) 玄容駿, “民俗을 통해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세미나 主題發表要旨, 濟大耽羅研究所, 1979, p.53.

24) 文公部 文化財管理局, 前掲書, 第一篇(李光奎 집필), p.55.

韓國의 夫婦와 그 子女로 構成되고 있는 家族形態를 西歐式 表現으로서의 核家族으로 보아 좋을 것인지는 論議의 여지가 있으나 이 「核家族」이란 表現을 排除하고 보면 濟州道의 家族形態가 그 生活方式에 있어서 他地方에 비해 特異하다는 것은 事實로 받아들여 좋을 것이다. 이러한 特異한 現象이 濟州道에 存在하는 것은 刻薄한 風土의 條件 때문이라 한다.²⁵⁾ 直系家族이나 제주도 特有의 家族形態에 대한 意識은 傳統的 意識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것은 近来 家族形態가 夫婦家族(夫婦中心의 家族)에로 變遷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Ⅲ. 意識上의 傳統性에 대한 概念分析

- 調查資料의 分析 I -

앞에서 우리는 傳統文化의 要素와 그 意識에 대하여 諸 項目에 걸쳐 살펴 보았는데 이제 이들 諸 意識이 濟州道民들에게 어느 정도 殘存해 있는지를 調查資料를 통하여 經驗的으로 알아 봄으로서 그 意識上의 傳統性을 推論하려 한다.

먼저 墳墓와 「신구간」에 관한 意識을 통하여 살펴 보면 그 傳統性이 濟州道民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殘存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산터를 찾는 것」에 대한 意識에서 보면 <表2>에 서 보여 주고 있는 것 처럼 「필요한 것으로 본다」는 肯定的 反應이 26%로서 「미신임으로 배격해야 한다」는 否定的 反應(③항 包含 20%)보다 強勢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濟州道民의 샤머니즘적 傳統性이 그만큼 강함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 하겠다. ②項 「心理的 安定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에 不遇하다」는 態度가 過半數(52%)임은 이를 뒷받침 해 준다. ②項은 否定的인 面을 다소 內包하면서도 산터를 보는데 대한 肯定的 意識이 深層部에 殘存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表2>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셨을때 좋은 산터를 찾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항	응	답	실 수	%
①	필요한 것으로 본다			264	25.9
②	심리적 안정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527	51.7
③	그저 합일 없는 사람들의 심심풀이인 것으로 본다			14	1.4
④	미신의 일종으로서 배격해야 할 것으로 본다			190	18.6
⑤	기타			12	1.2
	무	응	답	13	1.3
	계			1,020	100.0

25) 玄容駿, 前掲論文, p.53.

샤머니즘적 전통성을 알아보는 두번째 項은 濟州道에 상당한 정도로 殘存해 있는 「신구간」에 관련한 意識이다.

그 設問과 應答分析은 다음 <表 3>과 같다.

<表 3> 제주도의 풍속중 신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실 수	%
답	항		
①	오래 전통이고 생활에 편함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154	15.1
②	다소 개선되어야 할점이 있다	336	32.9
③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66	6.5
④	현대생활에 불편을 줌으로 없애는 것이 좋다	327	32.1
⑤	미신의 소산임으로 절대 없애야 한다	122	12.0
⑥	모르겠다	11	1.1
무응답		4	0.4
계		1,020	100.0

위 表에서 答項의 ①과 ②는 肯定的 反應이고 ④와 ⑤는 否定的 反應이며 ③項은 中立, ⑥項은 無關心의 反應으로 볼 수 있고 ①項에서 ⑤項으로 갈수록 점점 否定的인 反應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分類하고 보면 肯定的 反應과 否定的 反應의 比重이 각각 48.0%와 44.1%로서 다소 肯定的 反應이 우세하며 積極의 肯定的 경우(15.1%)가 積極의 否定的 경우(12.0%)보다 比重이 높다. 따라서 濟州道民의 意識에 있어서 샤머니즘의 傳統性이 強勢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儒教傳統에 관한 意識上的 傳統에 대해서는 官指向意識, 序列意識, 男女隔離意識등을 통하여 分析해 보았다.

官指向意識이 어떠한지를 調査設問을 통하여 分析해 보면 다음 <表 4>와 같다.

이 設問의 의도는 職業選擇의 傾向을 보고 官指向意識을 推論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現實에서 高級公務員은 權威의 象徴으로 볼 수 있고 高級社員은 權威의 面에서 그에 못 미치는 職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答項의 配列順序에서 ⑤에서 ①로 갈수록 官指向的 傾向이라 할 것이고 ①項과 ②項은 官指向意識의 表現으로, ④項과 ⑤項은 그에 대하는 意識의 表現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되면 ①, ②項에 應答한 사람들이 66.3%로서 ④, ⑤項에 應答한 19.7%보다 월등히 그 比重이 크다는 것은 결국 濟州道民들이 官指向意識이 강렬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表 4> 가형 선생님의 자격이 대회사의 고급사원도 될 수 있고 국가의 고급공무원도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	응답	실 수	%
① 고급사원의 보수가 많더라도 고급공무원이 되겠다		222	21.8
② 같은 보수 조건이라면 고급공무원이 되겠다		454	44.5
③ 아무래도 좋다		89	8.7
④ 같은 보수 조건이라면 고급사원이 되겠다		141	13.8
⑤ 고급공무원의 보수가 많더라도 고급사원이 되겠다.		60	5.9
⑥ 모르겠다		35	3.4
무응답		19	1.9
계		1,020	100.0

같은 報酬條件에서 公務員을 挾하려는 사람들이 報酬가 적어도 公務員이 되려는 사람들 보다 많은 것은 官指向的인 면서도 그만큼 報酬에 대한 靚心도 크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수 있다. 여기에 官指向意識이 官職의 報酬條件이 有利한 경우 더욱 강화될 것임은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官指向意識은 官職에 社會 經濟的인 有利한 報賞이 주어지는데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序列意識에 관해서는 職場內의 人間關係에 있어서 上位者와 下位者가 자리를 같이 하였을 때의 境遇를 들어 그 意識을 살펴보고저 하는데 이에 대한 設問과 応答을 分析한 것이 다음 <表 5>이다.

<表 5> 가형 직장의 윗 어른과 자리를 같이하여 식사할 때 윗 어른부터 자리잡고 앉은다음 아랫 사람들이 자리잡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	실 수	%
① 매우 당연하다		551	54.0
② 대체로 당연하다		416	40.8
③ 그저 그렇다		29	2.8
④ 대체로 부당하다		10	1.0
⑤ 매우 부당하다		8	0.8
⑥ 모르겠다		2	0.2
무응답		4	0.4
계		1,020	100.0

이 表에서 보면 濟州道民들은 적어도 職場生活에 있어서 序列意識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否定的 反應은 1.8%에 不過하다.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序列意識을 社会的 秩序를 유지 하려는 秩序意識으로 보면 그것은 肯定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上·下 身分 序列을 意識하여 이를 外形的인 形式的 行動으로 表示하여야만 秩序가 維持되리라는 意識의 表現 이라면 否定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設問項에 관하여는 다음 두가지가 問題點 으로 남는다. 하나는 이러한 設問을 통하여 序列意識을 올바르게 測定할 수 있는냐는 것이고 그 들은 이렇게 測定된 序列意識이 非合理的인 傳統的 權威主義의 表現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 이 다.

儒教的 傳統性으로 分析하고자 하는 세번째의 項目은 男女隔離意識이다. 男女隔離意識을 結婚 形態에 있어서 配偶者 選擇을 어떻게 하느냐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結婚形態가 요즘 근 대화 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그 近代化 過程은 父母의 意思에 의한 決定(仲媒)→父 母의 決定 後 交際(맞선)→本人의 決定(戀愛) 등의 段階를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²⁶⁾

다음 <表 6>은 이에 대한 設問과 應答을 分析한 것이다.

<表 6> 다음중 바람직한 결혼형태를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응답	응답	실 수	%
① 연애		130	12.8
② 연애후 부모 승낙		501	49.1
③ 부모 승낙후 연애		283	27.8
④ 仲媒		94	9.2
⑤ 기 타		9	0.9
무 응 답		3	0.3
계		1,020	100.0

이 表에서 우리는 濟州道民의 男女隔離意識이 상당한 정도로 近代化된 性格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애」項을 택한 경우가 「仲媒」項을 택한 경우 보다 比重이 큰 것은 男女交際의 自由化 傾向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며 父母가 關여하는 경우에도 積極的으로 關여하기 보다 消極的으로 關여하는 傾向을 나타내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表에 서 ②,③項에 응답한 사람들이 각각 49.1%, 27.8%로 합계 77%나 되는 것은 父母가 상당한

26) 崔在錫, 前掲書(本稿의 註 22) pp.441 ~ 442 參照.

정도로 影響力을 행사한다는 意識이 아직 強力하게 남아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道民의 意識狀態는 1960年代初 서울의 경우 自由婚 傾向²⁷⁾ 보다 높은 수준이고 1969년말 釜山市의 境遇²⁸⁾ 보다는 낮은 水準이다.

다음으로 家族形態에 대한 意識에 관련하여 濟州道民들의 傳統性을 살펴 보기로 한다.

한국의 傳統的 家族形態가 直系家族이며 濟州道는 그 特有的 家族形態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은 이미 言及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濟州道民들이 直系家族에 대한 意識과 同時에 濟州 特有的 家族形態에 대한 意識의 殘存정도를 살펴 보려 한다.

다음 <表 7>에서 ②項의 境遇가 濟州道 特有的 家族形態의 典型이라 할 수 있고 (「濟州型家族」으로 稱할 수 있을 것이다) ③項은 그 變形으로 볼 수 있으며 ①項은 夫婦家族(흔히 말하는 核家族)의 形態, ④項은 直系家族의 形態로 볼 수 있다.

<表 7> 나이 많은 부모를 모실때 다음 어떤 方法이 좋다고 보십니까? (다음의 어떤 方法도 形편상 가능하다고 할 경우)

답	항	응답	실 수	%
①	독립가옥에서 따로 생활하도록 한다		129	12.7
②	같은 집안에서 살되 식사를 따로 한다		78	7.7
③	독립가옥에서 살되 식사는 같이 한다		192	18.8
④	같은 집안에서 식사도 같이 한다		599	58.7
⑤	기타		14	1.4
⑥	모르겠다		5	0.5
	무응답		3	0.3
	계		1,020	100.0

위 <表 7>에서 보면 被面接者들은 直系家族의 形態를 가장 많이 指摘하고 있고(59%) 다음으로 「濟州型 家族」의 變形 形態(19%) → 夫婦家族(13%) → 「濟州型 家族」(8%)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事實上의 家族生活形態야 어떨든 濟州道民들의 態度에 있어서는 濟州道民들은 소위 典型的인 「濟州型 家族」이 좋은 形態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며 韓國의 傳統的 家族形態인 直系家族 形態를 좋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濟州道民들의 意識上 그 特有的 傳統

27) 上掲書, p.438 第一表 參照.

28) 신순기, 前掲書, p.45 < A 第 6 圖 > 參照.

性 보다 韓國人으로서의 傳統性이 강열함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變形된 「濟州型 家族」에 대한 反應의 比重이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家族生活에 있어서 부모와 住居空間을 같이하는 것은 食事を 같이 하는 것 보다 더 꺼리는 경향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 하겠다.

IV. 意識上의 傳統性에 대한 道內 他道民과의 比較 分析
 - 調査資料의 分析 II -

本稿에서 利用하고 있는 調査資料는 調査 當時 道內居住者를 대상으로 한 社會調査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 調査對象者 中에는 陸地部 他地方으로 부터의 移入民도 包含되어 있어서 이들 移入民들은 本土民과는 다른 異質性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순수한 濟州道民의 意識上의 傳統性을 살펴보기 위하여 調査對象者를 濟州道가 고향인 사람들(濟州本土民)과 他地方에서 轉入해 온 사람들(他道民)으로 나누어 이 兩集團의 意識을 比較 分析해 보기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濟州道的」이라 할 수 있는 意識上의 傳統性이 보다 명백하여 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故郷이라는 것은 그들의 精神的인 世界를 支配하는 要因일 뿐 아니라 그들의 社會化의 基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故郷의 差異는 그 生活經驗의 差異로하여 相異한 意識을 形成하게 될 可能性을 內包하게 될 것으로 보아 좋을 듯 하다.

그러면 이러한 問題를 샤머니즘의 意識에서 부터 分析해 보기로 한다.

샤머니즘의 意識에 있어서 먼저 墳墓에 關한 項目을 分析해 본 것이 다음 <表 8>이다.

<表 8> 「산터 보는 것」에 대한 故郷別 態度

구 분 고 향	① 必 要	② 心理的安定 에 不通	③ 할일없는 심심풀이	④ 미신으로 배격	⑤ 기 타	⑥ 無 應 答	計
濟州道	248 (25.7)	501 (51.9)	12 (1.2)	181 (18.8)	10 (1.0)	13 (1.3)	965 (100.0)
他 道	14 (29.8)	21 (44.7)	2 (4.3)	8 (17.0)	2 (4.3)	()	47 (100.0)
無 應 答	2 (25.0)	5 (62.5)	()	1 (12.5)	()	()	8 (100.0)
計	264 (25.9)	527 (51.7)	14 (1.4)	190 (18.6)	12 (1.2)	13 (1.3)	1,020 (100.0)

* 設問: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좋은 산터를 찾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表에서 보면 濟州本土民들은 「산터를 찾는 것」이 「必要」하다고 積極的으로 肯定하는 態度에 있어서 他道民 보다 다소 弱勢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心理的 安定」을 얻는다고 보는 경우는 보다 強勢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心理的 安定」을 얻는다는 態度는 「산터를 찾는 것」을 肯定的으로 보는 態度를 內包하는 表現일 것임으로 이를 고려하고 보면 濟州本土民의 경우가 他道民에 비하여 그 意識上傳統의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미신으로 배격」해야한다고 積極的으로 否定하는 態度는 兩集團에 비슷한 比重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③項의 「할일 없는 심심풀이」라는 態度를 包含하는 전반적인 否定的 態度에서 보면 濟州本土民이 보다 덜 否定的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墳墓에 關連하여 推論되는 샤머니즘의 傳統性은 他道民 보다 本土民에게 더 많이 殘存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傾向은 「신구간」에 대한 意識에서는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表9〉參照)

〈表9〉 「신구간」에 대한 故鄕別 態度

구분 고향	① 그대로 유지	② 다소 개선	③ 관심없음	④ 생활상 불편으로 없애	⑤ 미신임으로 없애	⑥ 모르겠다	무응답	계
濟州道	150 (15.5)	325 (33.7)	64 (6.6)	301 (31.2)	110 (11.4)	11 (1.1)	4 (4.1)	965 (100.0)
他道	4 (8.5)	10 (21.3)	1 (2.1)	22 (46.8)	10 (21.3)	()	()	47 (100.0)
무응답	()	1 (12.5)	1 (12.5)	4 (50.0)	2 (25.0)	()	()	8 (100.0)
계	154 (15.1)	336 (32.9)	66 (6.5)	327 (32.1)	122 (12.0)	11 (1.1)	4 (0.4)	1,020 (100.0)

※ 設問: 濟州道の 풍속중 신구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態度나 「다소 改善」할 점이 있다는 態度등 肯定的 態度가 本土民들에게 있어서는 他道民들에게 있어서 보다 훨씬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생활상 불편」함으로 없애는 것이 좋다는 경우와 「미신임으로」 없애야 한다는 態度등 否定的 態度에 있어서는 他道民 보다 훨씬 적은 比重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兩集團 別로 보아서도 本土民들의 경우는 「신구간」을 肯定하는 態度가 否定하는 態度보다 強한데 대하여 他道民의 경우는 否定的 態度가 훨씬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儒敎의 傳統에 關連된 問項을 分析함에 있어서 먼저 官指向意識에 대하여 分析해 본 것이 다음 〈表10〉이다.

<表 10> 故鄕別 公務員職 選好傾向

구 분 고 향	① 報酬적어 도公務員	② 같은報酬면 公務員	③ 아무래도 좋다	④ 같은報酬면 会社員	⑤ 報酬적어 도会社員	⑥ 모르겠다	無应答	計
濟州道	213 (22.1)	430 (44.6)	82 (8.5)	131 (13.6)	58 (6.0)	33 (3.4)	18 (1.9)	965 (100.0)
他 道	8 (17.0)	20 (42.6)	6 (12.8)	10 (21.3)	2 (4.3)	1 (2.1)	()	47 (100.0)
無 応 答	1 (12.5)	4 (50.0)	1 (12.5)	()	()	1 (12.5)	1 (12.5)	8 (100.0)
計	222 (21.8)	454 (44.5)	89 (8.7)	141 (13.8)	60 (5.9)	35 (3.4)	19 (1.9)	1,020 (100.0)

* 設問: 가령 선생님의 자격이 大会社の 高級社員도 될 수 있고 國家의 公務員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表에서 区分의 ①, ②項은 官指向性을 ④, ⑤은 그에 對하는 性向으로 볼 수 있는데 本土民 이나 他道民 모두 官指向意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本土民의 경우(66.7%)가 他道民의 경우(59.6%)보다 더 官指向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濟州道の 歷史上 被虐의 狀況이 官에의 羨望을 더욱 強化시켰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官指向的의 傳統이 濟州道에 보다 더 殘存해 있는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한편 本土民의 경우 「報酬가 적어도」 公務員 혹은 会社員이 되겠다는 態度가 각각 22.1%와 6.0%로서 他道民의 17.0% 및 4.3%에 비하여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은 他道가 故鄕인 사람들이 보다 더 報酬指向的인 입을 나타내어 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道內 他道出身者들의 生活上이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보다 報酬指向的으로 만든 結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儒敎傳統의 하나인 序列意識에 대해서 職場의 上位者와 같이 食事를 같이 할 때 자리잡는 順序에 關連지어 分析해 보면 다음 <表 11>과 같다.

表에서 ①項과 ②項이 序列重視의 態度인데 濟州本土民의 경우는 그 応答者의 94.8%가 他道民의 경우는 93.6%가 그러한 態度를 나타내고 있음은 兩集團 모두 序列重視의 態度가 強力함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肯定의 정도가 보다 강한 ①項에 있어서는 本土民의 경우가, 肯定의 정도가 弱한 ②項에 있어서는 他道民의 경우가 자기 相對的으로 높은 比重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本土民의 경우 相對的으로 他道民에 비하여 序列重視의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表 11> 故鄕別 序列重視의 態度

구분 고향	① 매우당연	② 바람직함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부담	⑤ 매우부담	⑥ 모르겠다	무응답	계
濟州道	523 (54.2)	392 (40.6)	27 (2.8)	9 (0.9)	8 (0.8)	2 (0.2)	4 (0.4)	965 (100.0)
他道	23 (48.9)	21 (44.7)	2 (4.3)	1 (2.1)	()	()	()	47 (100.0)
無응답	5 (62.5)	3 (37.5)	()	()	()	()	()	8 (100.0)
計	551 (54.0)	416 (40.8)	29 (2.8)	10 (1.0)	8 (0.8)	2 (0.2)	4 (0.4)	1,020 (100.0)

* 設問: 가명 직장의 첫 어본과 자리를 같이하여 식사할 때 첫어본부터 자리잡고 앉은 다음 아랫사람이 자리 잡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儒敎傳統의 마지막 項目으로 男女隔離意識에 대해서는 配偶者 選擇에 대한 態度를 통하여 分析하여 보았는데(<表 12> 參照) 그 結果 다음과 같은 事實이 發見되었다.

<表 12> 故鄕別 配偶者 選擇에 대한 態度

구분 고향	① 연애	② 연애후부 모습남	③ 부모승낙 후연애	④ 중매	⑤ 기타	⑥ 무응답	계
濟州道	124 (12.8)	481 (49.8)	258 (26.7)	91 (9.4)	9 (0.9)	2 (0.2)	965 (100.0)
他道	5 (10.6)	16 (34.0)	23 (48.9)	2 (4.3)	()	1 (2.1)	47 (100.0)
無응답	1 (12.5)	4 (50.0)	2 (25.0)	1 (12.5)	()	()	8 (100.0)
計	130 (12.8)	501 (49.1)	283 (27.8)	94 (9.2)	9 (0.9)	3 (0.3)	1,020 (100.0)

* 設問: 다음중 바람직한 결혼 형태를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첫째 本土民의 경우는 연애後 父母承諾이 49.8%로 제일 많고 他道의 경우는 父母承諾後 연애가 가장 많다(48.9%) 傳統的인 結婚形態인 仲媒의 경우는 兩集團에서 모두 10% 미만으로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兩集團을 比較해 보면 戀愛 및 戀愛後 父母承諾의 경우에는 濟州本土民의 경우 높고

父母承諾 後 戀愛의 경우는 他道民의 경우에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傳統的인 仲媒에 있어서는 本土民의 경우 他道民에 비교하여 더 높은 경향이다.

이러한 現象을 綜合해 보면 本土民의 경우 他道民 보다 더 戀愛指向的인 경향을 보이면서도 한편 仲媒라는 傳統에 대한 意識도 相對的으로 많이 殘存되어 있다. 兩 集團의 比較를 單純化하기 위하여 戀愛 後 父母承諾을 自由婚的인 것으로, 父母承諾 後 戀愛를 仲媒에 類似한 形態로 묶어 볼 수 있을 것이다. 戀愛 後 父母承諾의 경우는 本人에게 配偶者 決定의 主導權이 있는 반면에 父母承諾 後 戀愛의 경우는 父母의 意思가 크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게되면 결국 自由婚的인 傾向을 本土民의 경우 61.8%, 他道民의 경우 44.7%가 되고 仲媒的인 傾向은 本土民 37.1% 他道民 53.1%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本土民의 경우가 더 自由婚的인 傾向을 띠고 있는 것이고 이는 本土民의 意識上 男女隔離의 傳統性이 弱화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現象은 濟州道가 그 島嶼의 特性 때문에 傳統性의 變化가 늦다는 것을 假定할 때 濟州 本土民은 傳統的으로 男女隔離意識이 他道보다 薄弱하였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이러한 생각은 過去 濟州人들은 딸 낳기를 重히 여기는 女兒選好的 傾向을 보인 바 있고²⁹⁾ 瘠薄한 自然的 條件 때문에 “濟州道에 農業이 始作된 당시 부터 男女가 함께 勞動했던 것”³⁰⁾ 임으로 男女의 社會的 接觸이 많았을 것으로 보아 推論될 수도 있는 것이다.

以上 세 項目에 걸쳐 意識上의 儒敎의 傳統性에 대해 分析한 結果 두개 項目 即, 官指向意識과 序列意識에 있어서는 濟州本土民들에게 傳統性이 보다 많이 殘存해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儒敎의 傳統性으로 提起한 이들 項目이 과연 儒敎 그 自体만의 特性인 것인지는 더 究明해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家族形態에 關連하여 意識上의 傳統性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表 13> 參照)

<表 13> 故鄕別 家族形態에 대한 態度

구분 항목	① 독립가옥 독립취사	② 동일가옥 취사따르	③ 독립가옥 취사같이	④ 동일가옥 취사같이	⑤ 기 타	⑥ 모르겠다	무응답	계
濟州道	127 (13.2)	77 (8.0)	182 (18.9)	561 (58.1)	13 (1.3)	3 (0.3)	2 (0.2)	965 (100.0)
他道	2 (4.3)	1 (2.1)	8 (17.0)	32 (68.1)	1 (2.1)	2 (2.3)	1 (2.1)	47 (100.0)
無 應 答	()	()	2 (25.0)	6 (75.0)	()	()	()	8 (100.0)
計	129 (12.7)	78 (7.7)	192 (18.8)	599 (58.7)	14 (1.4)	5 (0.5)	3 (0.3)	1,020 (100.0)

* 設問: 나이 많은 부모를 모실때 다음 어떤 방법이 좋다고 보십니까?

29) 金尚憲, 南提錄; 濟州道教育委員會, 耽羅文獻集, p.54 參照.

30) 高銀, 濟州島, 一志社, 1976, p.202.

本土民이나 他道民 모두 傳統的인 直系家族을 選好하는 態度가 应答者의 過半数(本土民 58.1%, 他道民 68.1%)를 찾아하고 있어서 意識上 傳統性이 강력히 殘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全般的으로 볼 때 兩 集團 모두에서 直系家族→變形된 「濟州型 家族」→夫婦家族→「濟州型 家族」形態 順으로 점차 그 選好態도의 比重이 낮아지고 있다.

兩 集團을 比較해 보면 直系家族形態에 대해서는 他道民의 경우에 더 많은 選好態도를, 夫婦家族이나 「濟州型 家族」形態에 대해서는 本土民의 경우 더 많은 選好態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家族形態에 관한 意識에 있어서는 本土民이 意識上 傳統性의 殘存 정도가 낮고 近代的 意識을 갖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만일 「濟州型 家族」形態가 濟州道의 傳統이고 이 形態는 夫婦家族的인 性格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면 濟州道의 家族形態의 傳統 自体가 오늘날의 近代化에 앞서 近代的인 것으로 存在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男女隔離意識에서 言及했던 바와 類似的인 論理인 것이다.

V. 結 論

사람들의 意識은 社会 共通의 基本的 經驗과 生活樣式이 內面化된 結果로서 그들 社会의 社会 文化的 傳統을 反映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濟州道民들의 意識上的 傳統性을 論議함에 있어서는 먼저 濟州道의 社会 文化的 傳統부터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다.

濟州道의 社会·文化的 傳統은 韓國의 傳統 속에서 理解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한편 濟州道는 그 環節의 島嶼性과 刻薄한 自然的 条件 및 社会·經濟的 歷史의 特殊性 때문에 어떤 相異한 傳統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韓國의 傳統要因으로 가장 有力한 것은 샤머니즘과 儒教라고 할 수 있다. 이들 傳統要因들은 近代化 過程에서 崩壞되어 가고 있을 것이지만 文化遲滯現象이 나타나서 精神的 側面的 變化는 技術的·物質的 變化에 따라가지 못하는 관계로 특히 意識上的 傳統性은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아 옳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實際의 生活 속에서 多角的으로 檢討하여 볼 수 있을 것이지만, 本稿에서 是 샤머니즘의 傳統으로 墳墓에 관한 風習과 「신구간」風習에 대한 意識을, 儒教的 傳統으로 官指向意識, 序列意識, 男女隔離意識을 기타 家族形態에 관한 意識을 들어서 社会調查資料를 通하여 分析함으로써 濟州道民의 意識上的 傳統性을 究明해 보려고 하였다. 특히 調查資料에서 被面接者를 두개의 集團 즉, 濟州本土民과 道內居住 他道民으로 나누어 比較分析함으로써 이를 보다 明確히 把握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發見된 事實들은 다음과 같다.

- 1) 濟州道民들의 意識 속에는 샤머니즘의 傳統性이 強勢를 보이면서 殘存하고 있다.
- 2) 儒敎傳統에 대한 項目으로 提示된 官指向意識과 序列意識에 있어서 보면 그 傳統性이 샤머니즘의 意識에 있어서 보다 더 強勢를 나타내고 있다.
- 3) 男女隔離意識은 道內 他道民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은 狀態이다. 卽, 配偶者 選擇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 父母의 意思가 반영될 可能性은 많다고 할지라도 他道民에 비해 自由婚的 傾向을 많이 보이고 있다.
- 4) 家族形態에 대한 意識에 있어서 보면 全般的으로 直系家族을 選好하는 傾向이 강하지만 他道民 보다는 夫婦家族的인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男女隔離意識이나 家族形態에 대한 意識에 있어서 보면 他道民에 비해 더 近代的 形態를 띠고 있는데 이는 傳統의 拘束으로 부터 탈피된 경향이라기 보다 濟州道의 地理的 歷史的 特殊性이 本來 傳統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하자면 從來의 것에서 부터의 變化가 아니라 從來 存在하여 온 「濟州道的」인 것의 維持라고 할 것이다.

- 5) 結局 濟州道民들의 意識上 傳統性은 여러 側面에서 強勢를 보이면서 殘存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濟州社會는 그 만큼 停滯性을 띠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陳述들은 事實上 假說的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다 폭 넓고 깊이 있는 檢証이 必要한 것임을 附言해 둔다.

- Summary -

The Traditionalism in Sociocultural Consciousness of Cheju Islanders
- Based on Analysis of Social Survey Data -

Sbin, Haeng Cbul

The consciousness of Cheju islanders is reflection of the sociocultural tradition of their society. The sociocultural tradition of Cheju-island should be studied in context of Korean tradition, but we can not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its own special tradition because of the different natural condition and sociocultural history of Cheju-island.

The strongest determinants of Korean tradition is Shamanism and Confucianism. These traditional determinants may be disintegrat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but these remain in the consciousness for the cultural lag.

These problems could be investigated through the data based on social survey.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more definitely the traditionalism in the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by comparing and analyzing respondents divided between natives and non-natives of Cheju-island.

It was studied by the following substances:

- (1) The Shamanistic tradition through the consciousness of grave custom and "Shin Gu Gan";
- (2) Confucian tradition through the bureaucrat-oriented consciousness, ranking consciousness, consciousness of separation between the sexes, and
- (3) The pattern of family.

To summarize fact-findings briefly, they are as follows:

- (1) Shamanistic tradition still remains strongly in the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 (2) Traditionalism appears more strongly in case of bureaucrat-oriented consciousness and ranking consciousness related to Confucian tradition than in Shamanistic consciousness.
- (3) The native of Cheju-island seems to be relatively lower in consciousness of the separation between the sexes compared with non-natives of Cheju-island. That is to say, in choosing a match, the natives have a higher tendency to free marriage more than the non-natives, though they might be affected by their parent's opinion.
- (4) In the consciousness of the pattern of family, the natives are more oriented to husband-wife family life than the non-natives, even though generally they trend toward the lineal family strongly.

In the consciousness of the separation between the sexes and the pattern of family, the natives are more modernized than the non-natives. It is assumed that this is not the tendency to break away from the restraint of tradition but the continuance of tradition resulted from the geographic and historical speciality of Cheju-island. In other words, it is the maintenance of tradition existed from the past rather than the change from the past.

In conclusion, it is assumed that the traditionalism remains strongly in various aspects of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therefore Cheju society seems to be stagnant to that extent. But in fact these statements would be nothing but an assumption, so it is necessary to verify those more broadly and deeply.